

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보도 일시 | 2023. 2. 1.(수)16:00<br>(회의 종료시)이후 사용 | 배포 일시 | 2023. 2. 1.(수) 10:00   |
| 담당 부서 | 국정운영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임자   | 과 장 송헌규 (044-200-2082) |
| <총괄>  | 행정관리총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| 경 정 이인배 (044-200-2085) |

## ◇ '22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, 16년 만에 큰 폭으로 감소

- '22년('21년 대비) 보이스피싱 발생건수·피해금액 30% 대폭 감소
- 정부의 강력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

## ◇ 정부, '23년에도 범정부 TF 중심, 보이스피싱 근절에 박차

- 범죄 유형별·단계별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, 대책 고도화
- 과학기술·통신 발전에 따른 신종 수법 대비 대응책 수립
- 검·경 및 해외 정보·수사기관간 공조 강화, 총책 검거 전력

□ 보이스피싱은 첫 피해가 신고된 '06년 이후 16년간 피해가 꾸준히 증가, '21년도에는 총 피해금액이 7,744억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였으나,

-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수사, 그리고 통신·금융분야의 특별대책 등을 추진한 결과, '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·피해금액이 전년대비 30% 가량 대폭 감소\*하였다.

\* 범죄발생 : 30,982건('21년) → 21,832건('22년) / 피해금액 : 7,744억('21년) → 5,438억('22년)

□ 국무조정실은 2.1(수)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개최\*하고 이같은 성과를 발표하고,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보다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\* 회의 개요 : 2.1(수), 정부서울청사,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(주재),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, 경찰청 수사국장, 금융위 민생침해금융범죄대응단장, 금감원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실장,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 부센터장,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, 문체부 소통정책과장, 대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과장

□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배경으로 범정부 TF 중심 각 부처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대응체계를 강화한 것과, 특히 범행단계별 대응 전략을 ① 예방, ② 차단, ③ 수사, ④ 홍보강화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은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고있다.

**① 철저한 사전 예방**

- 각 부처는 피싱사이트 및 변작기 탐지, 불법거래 게시물 탐지·삭제를 강화하고, 대포폰 대량 개통을 막기 위해 개통 가능한 회선수 제한, 단말기 자체 국외 발신번호 표시 개선 등의 예방 조치를 하였다.
- 또한, 과기정통부는 금융·공공기관 등이 발송한 정상적인 문자를 수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‘안심마크(인증마크 + 안심문구) 표시’ 서비스를 18개\* 공공·금융기관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,
  - \* 금융결제원, 강북구청, 국민·신한·농협·기업은행 등
- 특히, 대면편취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경찰과 구직사이트 관계자들의 민·관 협업으로 현금수거책 알바 모집 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하였다.

**② 범죄수단 신속 차단**

- 경찰은 악성앱·문자, 대포폰·통장 등 생성에서 유통까지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하고, 민·관 협업하여 범행수단을 적극적으로 차단한 결과 18만여개의 범죄수단을 차단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.

<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이용 각종 범행수단 차단현황 ('22년, 경찰청) >

| 구분    | 전화번호     | 악성앱    | 카카오 계정 | 변작 중계기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차단 건수 | 168,047개 | 5,982개 | 6,964개 | 14,910개 |

- 각 통신사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번호의 이용중지 뿐만 아니라, 전화번호를 변조·발신하는 변작 중계기\*에 대해서도 사용을 차단하였다.

\* SIM박스 : 다량(최대 256개)의 USIM을 장착하여 해외 인터넷전화번호를 국내 이동전화번호(010)로 변경하는데 사용

- 또한, 금융위를 중심으로 은행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시 실명확인을 위해 '1원 송금' 방식을 개선\*하여 적용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였고,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우려 시, 피해자가 본인명의의 계좌를 일괄 선택·제한할 수 있도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(어카운트인포) 시스템도 시작하였다.

\* 인증번호 유효기간 단축(15분 이내) 및 '계좌개설용' 문구 표기

### ③ 관계기관 긴밀한 협업 수사

- 국내 말단 조직원부터 해외 총책 등 주요 조직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총책 등 상부조직원 657명을 검거하면서 전년 대비 25% 가량 증가\*하는 성과를 올렸다.

\* 상부 조직원 검거 : 527명('21년) → 657명('22년)

#### < 2022년 역할별 검거 현황 >

| 구분    | 검거인원 합계 | 역할별 검거 인원 |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    | 상부 조직원    | 하부 조직원 | 기타(통신업자 등) | 계좌명의인 |
| 2022년 | 25,030  | 657       | 14,511 | 5,016      | 4,846 |

- 특히, 정부합동수사단은 '22. 7월 출범 이래 약 5개월 간의 합동수사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외 총책, 대포통장 유통총책 등 총 111명을 입건하고 24명을 구속하였다.

#### < 주요 검거 사례 (경찰청 / 정부합동수사단) >

- ◇ 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95명 검거, 40명 구속<경찰청>
  - 중국 칭다오·광저우 등지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결성,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
- ◇ 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39명 검거, 10명 구속<경찰청>
  - 필리핀 마닐라에 보이스피싱 범죄조직(만준파) 결성 후, '17. 12월~'21. 12월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
- ◇ 대포통장·유심 유통 보이스피싱 조직 168명 검거, 12명 구속<경찰청>
  -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'20. 1월부터 '22. 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,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·모집책·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
- ◇ 조직폭력배와 마약사범 등이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<합수단>
  - 단순 현금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마약사범과 조직폭력배(동방파 두목, '칠성파' 행동대원)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'13. 9.~'22. 6.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약 9억 5,000만원을 편취한 전모를 규명하여 국내외 총책 등 총 30명을 입건하고 9명 구속

- 아울러, 정보·수사기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, 인터폴 등 국제기관 및 중국·필리핀 등 주요 거점국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, 국내·외 정보·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속해 왔다.

#### ④ 범정부적 다양한 홍보 실시

- 각 부처는 각종 예방 캠페인 실시, 은행창구·ATM 고액 입출금 시 제보 활성화, 특별자수 신고기간 운영, 경찰청-편의점업계 MOU 체결을 통한 상품권 신고 등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로 피해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.

\* (경찰) 범죄피해 유형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최신 범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전체 범행을 정교하게 재연한 드라마 형태의 영상을 공익광고로 송출중

-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은, 지난해 범부처 차원의 선제적·종합적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,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및 피해액이 30%나 획기적으로 감소했다면서 “올해에도 수사·통신·금융분야 등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지속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'23년 핵심 추진방향은 아래와 같다.

- ① (범행유형·단계별 분석) 범행단계별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AI·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, 관련자료를 수집·분석하여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실효성 있는 통신·금융분야 대책을 수시로 점검·보완하는 등 범죄 대응을 고도화하고,

#### < '23년 상반기 주요 추진정책 >

- 통합신고대응센터 : 단일화된 통합신고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
  - 통신 : 불법행위 이력자 신규개통 제한, 불법문자 신속 차단, 원스톱 문자신고 도입
  - 금융 : ATM 무통장 입금한도 축소,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, 원격제어 방지 등
- ② (신종수법 대응) 과학기술·통신 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추진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,
  - ③ (수사역량 총동원) 정보·수사역량을 총동원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하여, 국내·외 범죄조직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검거를 전개하여 나가기로 하였다.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국무조정실         | 책임자 | 과 장 송헌규 (044-200-2082) |
|               | 행정관리총괄과       | 담당자 | 경 정 이인배 (044-200-2085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 | 책임자 | 과 장 이정순 (044-202-6650) |
|               | 통신이용제도과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김주영 (044-202-6657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문화체육관광부       | 책임자 | 과 장 박소정 (044-203-2911) |
|               | 소통정책과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안지윤 (044-203-2913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방송통신위원회       | 책임자 | 과 장 최윤정 (02-2110-1520) |
|               | 인터넷이용자정책과     | 담당자 | 사무관 성재식 (02-2110-1521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금융위원회         | 책임자 | 단 장 남동우 (02-2100-2575) |
|               |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 | 담당자 | 사무관 최승희 (02-2100-2509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  | 책임자 | 과 장 김종민 (02-3150-2037) |
|               | 경제범죄수사과       | 담당자 | 계 장 유지훈 (02-3150-2763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정부합동수사단       | 책임자 | 단 장 김호삼 (02-2204-4962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담당자 | 검 사 전수진 (02-2204-4972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금융감독원         | 책임자 | 실 장 임정환 (02-3145-8120) |
|               | 금융사기전담대응단     | 담당자 | 팀 장 김세모 (02-3145-8130) |

## 참고1

##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현황 (경찰청)

### □ 발생 · 검거 현황

| 구분   | 합 계  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 기관사칭형 |         |       |       | 대출사기형  | 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| 발생 건수  | 피해 (억원) | 검거 건수  | 검거 인원  | 발생 건수 | 피해 (억원) | 검거 건수 | 검거 인원 | 발생 건수  | 피해 (억원) | 검거 건수  | 검거 인원  |
| 2018 | 34,132 | 4,040   | 29,952 | 37,624 | 6,221 | 1,430   | 4,673 | 5,491 | 27,911 | 2,610   | 25,279 | 32,133 |
| 2019 | 37,667 | 6,398   | 39,278 | 48,713 | 7,219 | 2,506   | 5,487 | 6,045 | 30,448 | 3,892   | 33,791 | 42,668 |
| 2020 | 31,681 | 7,000   | 34,051 | 39,324 | 7,844 | 2,144   | 4,297 | 4,797 | 23,837 | 4,856   | 29,754 | 34,527 |
| 2021 | 30,982 | 7,744   | 27,647 | 26,397 | 7,017 | 1,741   | 1,954 | 1,895 | 23,965 | 6,003   | 25,693 | 24,502 |
| 2022 | 21,832 | 5,438   | 24,522 | 25,030 | 8,930 | 2,077   | 4,103 | 4,500 | 12,902 | 3,361   | 20,419 | 20,530 |

※ 전화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크게 수사기관 · 금감원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‘기관사칭형’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해 피해자를 속이는 ‘대출사기형’으로 구분

### □ 피해자 연령별 현황

| 연도   | 합계     | 20대 이하 | 30대   | 40대    | 50대    | 60대   | 70대 이상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
| 2018 | 34,132 | 4,480  | 6,483 | 9,842  | 9,313  | 3,389 | 625    |
| 2019 | 37,667 | 3,855  | 6,041 | 10,264 | 11,825 | 4,617 | 1,065  |
| 2020 | 31,681 | 5,323  | 4,406 | 7,704  | 9,217  | 4,188 | 843    |
| 2021 | 30,982 | 5,459  | 3,299 | 6,755  | 9,564  | 4,778 | 1,127  |
| 2022 | 21,832 | 6,805  | 1,821 | 3,413  | 5,378  | 3,462 | 953    |

### □ 편취수법별 현황

| 구분   | 합계     | 계좌이체   | 가상계좌 | 대면편취   | 특정장소 지정 | 절도  | 배송형 | 상품권 등 요구 | 피싱 혼합형 |
|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|
| 2018 | 34,132 | 30,611 | 362  | 2,547  | 274     | 123 | 51  | 115      | 49     |
| 2019 | 37,667 | 30,517 | 244  | 3,244  | 338     | 142 | 149 | 727      | 2,306  |
| 2020 | 31,681 | 10,596 | 226  | 15,111 | 139     | 160 | 276 | 3,582    | 1,591  |
| 2021 | 30,982 | 3,362  | 121  | 22,752 | 166     | 89  | 418 | 3,900    | 174    |
| 2022 | 21,832 | 2,161  | 170  | 14,053 | 98      | 20  | 431 | 4,641    | 258    |

**「중국 거점 8개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」 <경찰청>**

- ▲ 중국 칭다오·광저우 등지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결성,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442명으로부터 34억 원 상당을 편취한 8개 범죄조직 총책 등 95명 검거(구속40)
- ※ 국제공조를 통해 관리자급 조직원 3명 송환

**「필리핀 거점 최대규모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」 <경찰청>**

- ▲ 필리핀 마닐라에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(민준파)을 결성한 후 '17.12월부터 '21.12월 까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한대출 등 명목으로 피해자 562명으로부터 10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조직원 39명 검거(구속10)
- ※ 국제공조를 통해 총책·부총책 등 4명 송환

**「필리핀 거점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」 <경찰청>**

- ▲ '15.1월부터 '16.6월까지 필리핀 올티가스 지역에서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마련해 금융기관을 사칭한 수법으로 피해자 378명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을 편취한 총책 등 39명 검거(구속10)
- ※ 국제공조를 통해 공동총책·관리책 3명 송환

**「중국·필리핀 거점 9개 전화금융사기 조직 검거」 <경찰청>**

- ▲ 중국·필리핀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를 두고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278명으로부터 37억 원 상당을 편취한 9개 범죄조직 총책 등 조직원 37명 검거(구속23)

**「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'통장협박' 조직 검거」 <경찰청>**

- ▲ 해외에 거점을 둔 피싱조직과 공모, 불법 도박사이트 관리계좌에 피싱 피해금 일부를 소액 송금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 명목의 합의금을 갈취한 일명 '통장협박' 조직 총책 등 40명 검거(구속25)

「대포통장·유심 유통 범죄조직 검거」 <경찰청>

- ▲ 통신 판매점 5개소를 개설한 후 '20.1월부터 '22.8월까지 인터넷 등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개통한 대포유심 1,716개와 명의자 동의 없이 개설한 증권계좌 417개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범죄조직 총책·모집책·명의자 등 총 168명 검거(구속12)

「전화번호 변작 중계소 운영책 등 검거」 <경찰청>

- ▲ '21.11월부터 '22.10월까지 해외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공모해 국내에서 발신번호 변작 중계소 63개소를 운영한 관리책 등 72명 검거(구속52), 범행 수단(대포폰 2,417대·대포유심 5,661개) 압수 및 이용중지 조치

「무등록 환전업 등 불법환전소 단속」 <경찰청>

- ▲ '21.1월부터 '22.9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수익 총 670억 원 상당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거점 범죄조직 관리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환전업을 영위한 불법 환전소 92개소 단속, 운영자 등 109명 검거(구속9)

「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수사」 <합수단>

- ▲ 단순 현금수거책 관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여 '20.11.~12. 약 3억원의 보이스 피싱 피해금이 중국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밝혀내고,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았던 중국인 불법 환전책 3명을 검거한 후 1명 구속
- ▲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실시간 이상거래자료를 토대로 피해금을 모아 중국으로 보내는 송금책을 특정하고,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'22.9.~10. 피해자 11명의 피해금 약 5억원 송금사실을 밝혀내 중국인 송금책 구속

「국제공조 등을 통한 도피사범 검거」 <합수단>

- ▲ '15.1.~'18.6. 피해자 202명으로부터 약 28억원을 편취하고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 피싱 조직원을 검거, 송환하고, 16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실을 밝혀내 구속
- ▲ '18.3.~4. 피해자 93명으로부터 약 9억 5,000만원을 편취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국내관리책을 검거, 송환하고, 추가 범행을 인지하여 구속
- ▲ '13.1.~'14.11. 피해자 296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을 편취하고 11년 간 수배를 피하며 국내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공소시효 완성 직전 검거하여 구속



### 참고3

## '23년 통신·금융분야 주요 대책 (과기정통부·방통위·금융위)

### <통신분야 대책>

| 연번 | 과제명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|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| 완료시한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  | 불법행위 이력자<br>휴대전화<br>신규개통제한 | 대포폰,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자가 일정기간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는 것을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| '23.2월     |
| 2  | 불법문자<br>신속 차단              | 문자메시지 전송규격에 식별코드를 삽입하여 불법문자 신속 차단(7일 → 2일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| '23.3월     |
| 3  | 국제전화 안내<br>의무 강화           | ① 국제전화 음성 안내 서비스 제공<br>② 국내에 있는 이용자의 전화번호가 도용되어 해외 로밍 형태로 허위 인입 시 수신 차단 | 시스템 개발 및<br>관련 고시 개정 | '23.上      |
| 4  | 원스톱(간편)<br>문자신고 채널<br>도입   | ① 의심문자 수신시 '스팸' 신고창이 바로 확인되도록 단말기 기능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| '23.上     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스팸문자 신고 외에도, 피싱문자 신고 채널(경찰청) 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| '23.下~     |
| 5  | 휴대전화 개통시<br>본인확인 절차 강화     |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강화 및 신분증 스캐너 도입 확대 등  | 시스템 개발 및<br>가이드라인 마련 | '23년       |
| 6  | 전화번호 유효성<br>검증절차 개선        | 발신번호 등록시 번호의 실소유자 확인을 위한 유효성 검증시스템 구축(안) 마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근거 법령 마련             | '23년       |
| 7  | 보이스피싱 대응<br>R&D            | AI,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을 활용한 R&D를 추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소과정(①탐자예방-②추적-③수사지원) 대응력 제고  | 연구개발 관리              | '22 ~ '24년 |

### <금융분야 대책>

| 연번 | 과제명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| 조치사항                  | 완료시한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1  | ATM 무통장<br>입금한도 축소  |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: 1회 100만원 → 50만원<br>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 입금 수취한도 설정 : 1일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개발 및<br>금융권 규정 개정 | '23.上  |
| 2  | 오픈뱅킹<br>피해규모 축소     | 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<br>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(1일 한도 : 1천만원 → 300만원)<br>③ 이상거래 탐지강화 | 시스템 개발 및<br>금융권 규정 개정 | '23.上  |
| 3  | 오픈뱅킹<br>방어수단 마련     | ①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오픈뱅킹 가입 제한<br>②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 |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 | '23.上  |
| 4  | 원격제어 방지             | 원격조종 앱 차단   | 시스템 개발                | '23.上  |
| 5  | 여전사<br>본인확인 강화      | 여전사도 카드발급 / 대출신청 단계 중 신분증 사본을 받고, 진위확인시스템 사용  | 시스템 개발 및<br>가이드라인 마련  | '23.9월 |
| 6  | 비대면 계좌개설<br>본인확인 강화 | 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<br>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| 시스템 개발 및<br>금융권 규정 개정 | '23.下  |